

중국, 근로자 대상 개인연금제도 시범 도입

김유미 연구원

요약

2022년 4월 중국 국무원은 다층적이고 균형 있는 연금체계 개선을 위해 「개인연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새롭게 도입된 개인연금제도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세제혜택이 지원될 예정임. 이번 발표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연금시장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연금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연금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2022년 4월 중국 국무원은 양로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층적이고 다양한 연금보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인연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动个人养老金发展的意见”)을 발표함¹⁾
 - 중국은 3층 연금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1년간 새로운 개인연금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함
 - 가입대상은 공적연금제도인 양로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고 적립금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연간 최대 12,000위안까지 기여할 수 있으며, 가입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도 지원될 예정임
 - 개인연금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충적 연금으로서 가입 시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적립금은 은행 자산관리 상품과 보험, 공모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됨
 - 중국 동우증권(东吴证券)는 개인연금 기여금 규모가 2022년 5천억 위안에서 2030년 4.8조 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누적 기여금은 2030년 21.5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²⁾
- 중국의 연금체계는 3층 구조³⁾로 이루어져있으나 공적연금제도인 양로보험의 의존도가 높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양로보험의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1년 만인 2021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⁴⁾을 기록하였으며, 203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뿐만 아니라 인구 성장률은 UN이 예측한 2032년보다 10년 빠른 2022년에 마이너스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⁵⁾

1) 중국 국무원(2022. 4. 21), “国务院办公厅关于推动个人养老金发展的意见”

2) 동방재부망(东方财富网), “保险：《关于推动个人养老金发展的意见》点评：个人账户制探索落地，养老金融大有可为”

3) 중국의 연금체계는 1층 양로보험을 주축으로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짐

4)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7% 이상)에서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14% 이상)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독일 40년, 일본은 24년, 한국 18년임

5)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출생률은 2000년 14.03명에서 2020년 8.52명으로 하락하였고, 노인부양비는 2020년 19.7%에서 2030년 25%,

- 20세 이상 인구의 약 87%가 가입하고 있는 양로보험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2019년 47%에서 2050년 96.3%로 증가하였고 기금은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⁶⁾
- 퇴직연금의 경우 희망 기업에 한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업이 한정적이어서 20세 이상 인구의 약 2%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연금의 경우 2018년부터 시작된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

○ 새롭게 시범 운영되는 개인연금 제도는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좌 중심의 거래방식을 채택하여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세제적격 개인연금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나 참여율 저조로 2020년 기준 개인연금을 포함한 금융권의 연금보험 자산이 전체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⁷⁾
 - 미국의 경우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불과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3.5%, 38.8% 수준임
- 당시 세제혜택은 적립금과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Exempt, Exempt, Tased)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적용한 반면, 개선안에서는 연금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 연금자산관리, 공모펀드 등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임⁸⁾
- 또한 개인연금 가입 시 상품 중심에서 계좌 중심으로 거래 방식이 바뀌고 정부가 관리하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됨
- 한편, 기여금 운용에 관해서는 금융당국이 허용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한해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노후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연금 제도 도입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연금시장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연금 상품과 서비스, 투자경험을 통해 개인연금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중국은 자국의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40여 년간 유지해 온 외국계 금융사의 현지법인 지분을 제한을 해제하여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이번 개선안으로 연금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헝안 스탠다드생명보험회사(Heng An Standard Life)는 최초의 외국계 연금보험회사로 승인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독일 알리안츠(alianz)가 중국 순수 외국자본 보험자산운용사를 설립함
- 2022년 2월 중국 금융당국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 Rock)과 중국 건설은행(CCB)이 합작한 자산운용사인 블랙록CCB에게 광둥성 광저우와 쓰촨성 청두에서 1년간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⁹⁾
 -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JP모건(JP Mogan)도 금융당국의 판매 허가를 기다리고 있음

2050년에는 4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6) 중국의 사회과학원, 「중국연금정산보고서 2019-2050」

7)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CICC Research」

8) Securities Market Weekly(2022. 5. 6), “个人养老新规缓解保险负债端压力”

9) SHINE(2022. 4. 26), “Foreign asset manager cashing in on China's pension market”